

# 최신 에너지 기술·다양한 환경제품 '한눈에'

##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개막

DJ센터서 12개 분야 200여개사 참여  
구매상담·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진행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의 막이 올랐다.

광주시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은 11일까지 3일간 열린다.

개막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객재욱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차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광주도시공사는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밸리신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밸리신단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막식은 강 시장의 환영사, 점등식, 전시장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이 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관람객들이 KI에코시스템주에서 개발한 AI수거로봇을 사용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11일까지 이어질 에너지 대전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기술, 자원순환 등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보호 제품을 선보인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

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12개 분야 200개 사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 보호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매 상담회인 '동반성장페어'는 대기업 80여개 사, 중소기업 150여개 사가 참여해 기업 간 매칭, 사례 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KOTRA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한다. 또 전시장내 스튜디오를 조성해 참가기업들에게 제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수출플랫폼에서 상품 등록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전시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설명회, RE100 이행 전략 세미나 등 정책과 산업을 잇는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도 잇따라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매력은 '넷-제로마켓(Net-Zero Market)'이라는 시민 체험형 행사다. 기업과 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야생동물 사진 전시회 관람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천연 수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환경·에너지 분야 논의의 장인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이 미래 에너지 보고가 될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풍부한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혁신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李大통령, 향후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

### "공무원 중립 위반, 공직사회 신뢰 실추"

### 강훈식 '배석 부적절' 의견 전달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형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송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

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송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는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

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송위원장이 배석할 수 없다면 방송위의 다른 사람에대신 참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규정에 따르면(국무위원이아님에도 배석을 원하는 기관장의 경우)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참석을 건의한 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석할 수 있다. 어제 조달청도 보고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방송위 관계자도) 참석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위의(자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 해양수산 기후변화센터 유치 잔걸음

### 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로드맵 마련

전남도가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지난 8일 도청에서 개최하는 등 센터 유치와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용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역량을 갖춘 범국가적 전문기관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통해 ▲전남의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여건 및 경쟁력 분석 ▲센터 설립으로 수산업 등 관련 업종의 영향력·경제적 파급력 분석 ▲범국가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등 3대 과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남의 입지적 강점과 수산업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남지역 설립 당위성과 입지 적합성을 도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향과 맞물려 이번 용역은 전남도 차원에서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

기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와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전청우 친환경수산업과장은 "전남 수산업은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다"며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센터 설립과 유치를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후주택 5천 가구 화재예방 긴급점검

전남도는 9일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복지기동대와 전남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노후주택 긴급 화재예방 점검과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월8일까지 2개월간 5천가구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노후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점검과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